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 월호
2025년

COVER STORY Page 24
Enchanted Circle Scenic By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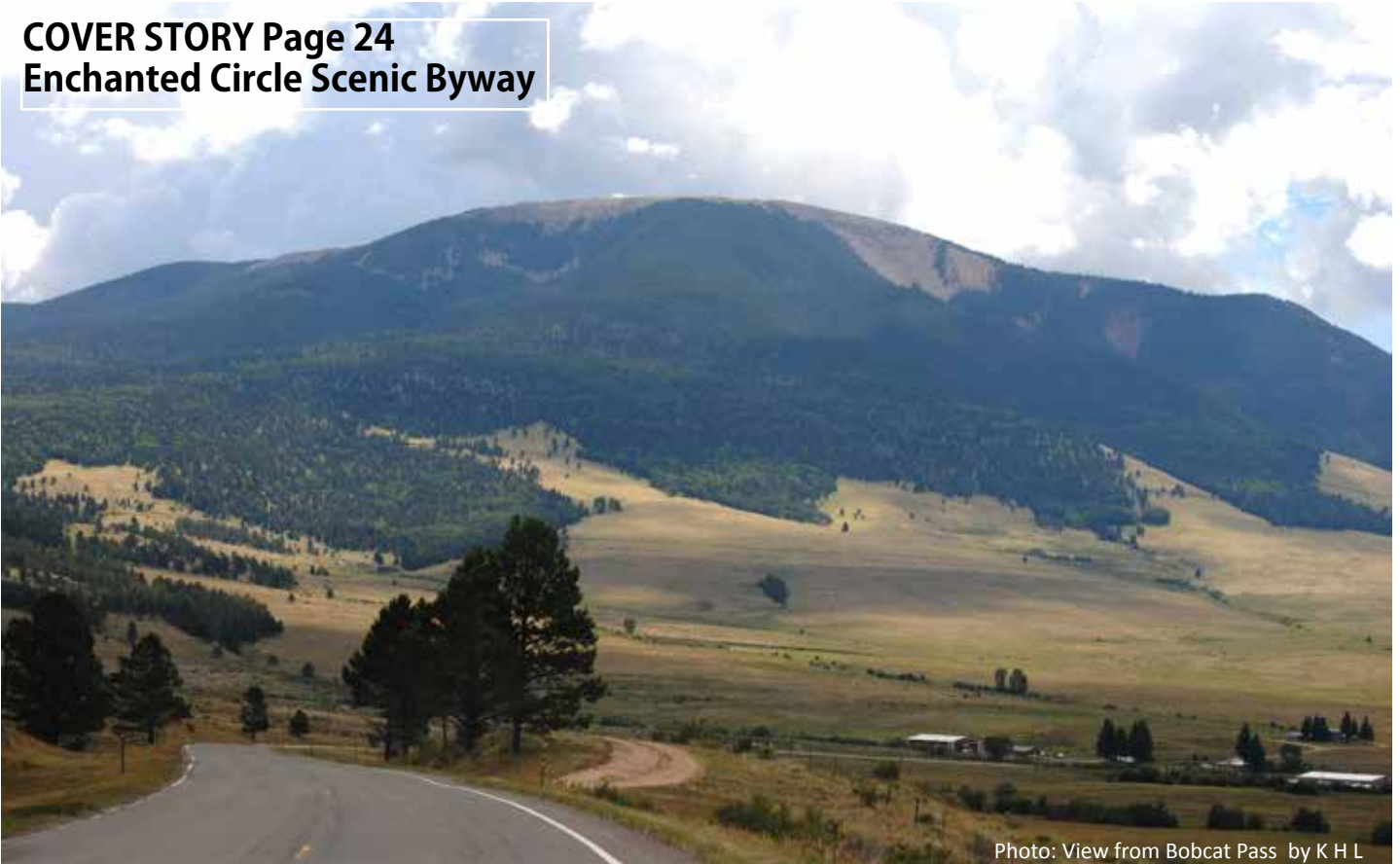


Photo: View from Bobcat Pass by K H L

차 례 (CONTENTS)

한인회 소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	2
2025년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	2
뉴멕시코 한국학교: 한국학교 소식 이은주 :	3
지역 뉴스: UNM 의대 대규모 확장 계획 :	4
KOWIN : 오방색과 KPop Demon Hunters :	5
지역 뉴스: 산타페, 미국 여행지 1위로 선정/ 부고 윤성열 목사 :	7
지역 뉴스: 박광종 교수, 여성가족부 표창 :	8
산타페 교회, 추석근 담임 목사 부임 :	8
뉴멕시코, 양자 컴퓨팅 발전을 도모 :	8
국내뉴스: 지난 7/8월 국내주요 뉴스 :	9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	9
칼럼: 프락시스 헬라어 신약성경이 나오기까지(5) 김기천 :	10
수필: 폭을 잘 대라 이정길 :	11

칼럼: 기후 대전 나정용 :	12
신간소개: 성공적인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	13
기독교윤리(13) 결혼의 의미 김민순 :	14
지역 뉴스: 알버커키 노숙자 지원 계획 :	15
독후감: “다시 집으로” 를 읽고 김장숙 :	16
수필: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나정자 :	17
선교: 신유사역은 교회의 사명이다 신경일 :	19
수필: 뉴멕시코의 농촌 의료 최혜민 :	20
영어이야기: Vaseline 이야기 이상목 :	21
수필: “신앙의 편대비행, 그 하늘을 함께 날아가는 은혜” 박선희 :	23
여행: 경치좋은 순환도로 엔첸티드 서클 시닉 바이웨이 :	24
재정관리: 평생을 보장하는 어뉴리티 이한주 :	26
광고: NM 한인교회, 한인업소안내 :	27-30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자

제21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어제는 장대비가 쏟아져 오랫동안 대지가 축축하게 적셔 졌습니다. 이제는 무더위가 가시고 서늘해진 날씨가 피부에서 실감 날 만큼 살며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반갑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회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15일 한인회 이사이신 김길자씨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후 참석자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한인회에서 준비했습니다.한인회는 교민 여러분의 경조사에 사정이 허락하는한

장소 제공과 여러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7월에는 신경순 100불 김길자 700불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8월12일 줌으로 가르킬 한국어 교사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성 도시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마련될 것 입니다.

8월 29일부터 가을 학기 한국학교 개강입니다. 이은주 교장선생님의 사임으로 한국학교 행정업무는 이효림 선생님이 하실것입니다. 학생들의 수학 특강을

라며 한인회에서도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9월 9일에는 한인회에서 영사업무가 있습니다.시민권자들의 국적포기 .출생신고 위임장등 업무가 필요하신 교민들께서는 일년에 두번있는 영사의 출장업무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월 15일 저는 한국으로 떠납니다.9월 24일부터 지방 자치단체 방문을 시작으로 세계한인회장 및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행사를 끝으로 열흘간의 강행군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10월 14일 미국으로 돌아와 바로 김치축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이석 선생님이 하실것입니다. 유아반 선생님은 고등학생인 주은 Coletta 가 맡아 주실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한글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10월 25일은 김치축제의 날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잔치인 만큼 많은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음식마련 판매 정리 정돈등 수많은 일에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년 하반기

순회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9 월에 뉴 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5 년 9 월 9 일 화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뉴 멕시코 한인회관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 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민원수수료(반드시 현금이나 Money Order 로 준비)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수학·물리 개인 과외

- 코넬대학교 수학 및 물리학과 졸업
- 현재 뉴멕시코 대학 양자컴퓨터 박사과정 (5년차)
- 민사고/국제고 등 특목고 학생 다수 지도 경험
- 과목: 유초·중·고 수학, 물리 (SAT/AP/내신/선행 등 모두 가능)



수업 시간: 협의 가능 (평일 저녁 / 주말)

수업 방식: 대면 및 온라인

수업료: 협의 (문의 주세요)

김이석 607-483-7942
leeseok@unm.edu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한국학교 소식

이은주



문득 입을 만한 책 없나 하고 주변을 살피게 되는 걸로 봐선, 벌써 처서가 지났나 하고 달력을 보니, 처서를 지나 백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한국의 절기를 피부로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계절이 순환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 흐름에 따라 24절기로 나누어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밭을 매며 수확의 기쁨을 느꼈을 선조들의 삶을 제 작은 텃밭에서 느껴봅니다.

산자락에 자그마한 밭떼기 하나만 있어도 사철 온 가족 먹을 먹거리가 풍성했을 테지만, 절기에 따라 밀려오는 일거리를 제때 처내지 못하면 저장할 곳도 없고 아까운 농산물을 버리게 생겼으니, 몸이 아파도 밭으로 나가야 했겠지요.

그렇게 절기의 흐름과 삶의 이치를 곱씹다 보니, 시절이 어김없이 다가오듯 자연의 한 부분인 사람도 참 변함이 없음을 깨닫게 해 준 사마천의 《사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원전 100년여 전에 기록된 역사서가 현재에도 인문 고전 필독 리스트에 들어가는 걸로 봐선, 시대와 환경은 달라져도 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사기》는 등장인물이 왕이나 장군뿐 아니라, 장사꾼·유학자·도둑, 심지어 패배자들까지도 포함하여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에 집중한 책입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기 좋은 이 절기에,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이 8월 29일과 30일에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가을 방학과 김치 축제, 추수감사절을 제외한 총 15주간 진행됩니다. 개강일 이후에도 등록을 계속 받으시니, 미처 등록을 마치지 못한 학부모님과 성인반 학생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학기에는 성인반 총 36명이 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어 배우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엘버커키뿐만 아니라 알라모고도, 산타페 지역에서 온라인 수업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 한국어 배우기 열기는 쉽사리 가라앉을 유행이 아님을 절실히 느낍니다.

종강일에는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고, 특별활동으로 산수화를 그리기도 하고 최신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들로 한국 놀이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준비한 한국 전통 간식거리와 음료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한인회 회장님과 교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관련 소식입니다.

1.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K-종이접기 대회에 우리 학교 아동반에서 3작품을 출품했는데, 세 작품 모두 창의성·조형성·예술성 등을 고루 갖춘 수준 높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중 김강희 선생님의 지도로 임세린, 이연우, 이선우, 진수빈 군이 만든 작품 ‘아름다운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작품은 8월 1일과 2일, 한국어 학술대회가 열린 장소에 전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뉴멕시코 한국학교-지도:김강희 교사, 학생: 임세린, 이연우, 이선우, 진수빈



*향기로운 제주의 봄-지도:남지현 교사, 학생: 윤선주, 이영진, 한준명, 임세진



*단군신화- 지도: 박영서 교사, 학생: 주하, 이은진, 최을, 유나, 황세아, 김리안, 노라

2. 55인치 벽걸이용 전자칠판을 구매했습니다. 설치와 선정에 도움 주신 이수신 전 교장님과

형재영님께 감사드립니다.

3. 거리상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뉴멕시코 전역의 분들이 온라인으로 개인 또는 그룹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실 경우 한국학교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개인 교수나 그룹 지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학교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국학교 소식이었습니다.

고전을 펼치듯, 자연의 흐름과 함께 한국학교의 가을도 성장과 성숙을 함께 차곡차곡 이루길 기원합니다.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뉴멕시코 한국학교

Enjoy learning Korean together!

EXPLORE LANGUAGE, CULTURE, FOOD AND MUSIC ALONG THE WAY!



Scan me to learn more and register!



지역 뉴스

UNM, 의대 대규모 확장 계획 발표

뉴멕시코 대학은 향후 10년 안에 의과 대학을 대폭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뉴멕시코 주의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확장 계획은 6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수백 개의 병원 침대와 직원 채용과 함께 캠퍼스 내 새로운 시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LFC(Legislative Finance Committee)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관계자들은 앨버커키의 입법 재정 위원회에 의과대학 학생 수를 거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뉴멕시코주의 노동력에 매년 약 54명의 의사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UNM은 1967년에 지어진 의대의 본관인 레지



증축한 UNM 병원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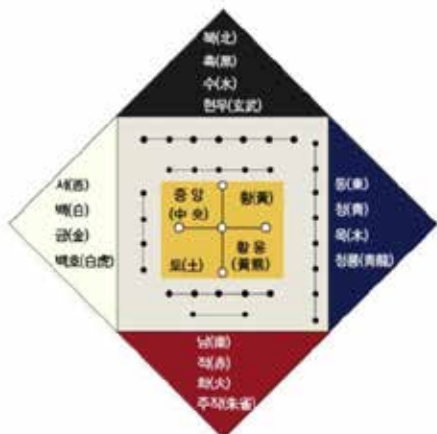
널드 헤버 피츠 홀을 대체할 새 건물을 건설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새 건물이 2030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UNM 건강 과학 대변인 크리스 라미레즈는 주 의회가 새로운 의과대학에 3,0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나머지 자금은 주 지원, 자선 사업, UNM 자본금 등을 섞어서 조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에서는 확장으로 인해 의과대학 등록자 수(건강 제공자 프로그램,

>> 7 페이지로 계속 >>

오방색과 KPop Demon Hunters

미국에 온 지 어느새 25 년째입니다. 만약 한국에 계속 살았다면 한국 문화의 섬세하고 무궁한 역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코윈 캠프와 한글학교에서 진행하는 설날, 추석 문화 체험, 그리고 김치 축제를 코윈이 담당하면서 저를 비롯한 회원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섬세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2025 년 코윈 캠프는 ‘오방색을 주제로 종이비행기, 매듭, 양초, 김치 만들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코윈캠프에는 과학박물관 Explora 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흥미로운 과학 놀이 시간을 마련하여 캠프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오방색은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한 다섯 가지 색으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을 말합니다. 이 다섯 가지 색은 각각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오행을 상징하며, 한국



오방색(五方色)

의 전통 공예, 복식,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와 균형을 나타냅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오방색은 악귀를 쫓고 복을 가져다주며, 우주 만물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코윈 캠프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Kpop Demon Hunter)’에서도 오방색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문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더 이끌기 위해 찾아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동연, 김현주 기자에 따르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오방색과 전통 문양, 그리고 주인공 라미가 사용하는 장검은 한국의 국가유산인 사인참사검(四寅斬邪劍)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 궁중과 민간에서 재앙과 악귀를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인참사검의 검날에는 별자리 28 수(宿)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문양들은 악령을 물리치는 힘을 불어넣는다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사인참사검

또한, 갓을 쓴 까치 ‘수씨’가 ‘더피’와 함께 라미에게 편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 독특한 까치와 호랑이의 조합은 조선 후기 민화인 호작도

박광종
뉴멕시코 KOWIN
지부장
하이랜드대학교수



(虎鵲圖)에서 따온 것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까치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자 호랑이의 의미를 담아 한국의 민화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호작도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 건축물의 오방색 문양인 단청과 무대 장식으로 활용된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등장합니다.



일월오봉도

단청은 아름다운 장식뿐 아니라 악귀를 물리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해와 달, 다섯 봉우리로 구성된 일월오

봉도는 왕의 권위와 우주 만물의 조화를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 곳곳에 담긴 오방색의 깊은 의미를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면서, 케이팝 데몬 헌터와 연결해 설명해주니 아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윈 캠프를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방색을 상징하는 음식인 잡채와 불고기를 기부해주신 최신희 집사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회원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88세의 연세에도 아이들에게 종이비행기 접기를 지도해주신 이경화 장로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1 월에는 코윈에서 '생일상 차리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 음식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일상을 직접 차려주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생일 음식들을 배우고 만들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2025 KOWIN CAMP



AUG 16, 2025
2025 KOWIN CAMP
KAMC,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August 16, 2025, 9:30 A.M. - 4:00 P.M.
Full Price Campers - \$65.00
(\$50.00 if pre-registered by August 9, 2025)



지역 뉴스

산타페, 미국 최고 여행지 1위로 선정

미국에서 발행하는 여행과 여가(Travel + Leisure)잡지에서 ‘특이한 도시’(The City Different)선정에서 산타페가 독자 점수 88.80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미국 최고 여행지 목록에서 산타페는 뉴올리언스, 호놀룰루, 뉴욕 등 15개 도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산타페는 해당 매체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25곳’ 순위에서도 19위를 차지하며, 미국 도시 중 유일하게 이 목록에 올랐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산타페 관광청(TOURISM Santa Fe)의 랜디 랜달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산타페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타페는 2002년부터 Travel + Leisure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도시 목록에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산타페는 꾸준한 인정을 받

아 세계 최고의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a World’s Best Awards Hall of Fame Honoree)

앨런 웨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산타페의 따뜻한 환대와 매력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 문화, 예술, 음식, 건축,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부터 우리를 둘러싼 산들까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산타페의 리조트들도 이 출판사의 최고 호텔 및 스파 목록에 올랐다.비숍스 로지(Bishop’s Lodge)는 서부 지역 최고 리조트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고, 텐 사우전드 웨이브스(Ten Thousand Waves)는 미국 국내 최고 스파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다.

랜들은 “산타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산타페의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이 경험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랜들은 자부심 외에도 이러한 인정이 큰 지지라고 말했다. Travel + Leisure의 상은 독자 평점을 기반으로 수여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산타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말 언제나 특별해요.” 산타페 시민의 한사람인 랜달의 말이다. “저희는 러시모어 산(Mount Rushmore)처럼 버킷리스트(bucket list)에 있는 여행지가 아니에요. 다시 찾아와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1974년부터 산타페의 유명 레스토랑인

부고 (訃告)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를 담임해 오셨던 윤성열 목사님께서 지난 8월27일 향년 6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윤목사님은 1958년 3월 26일,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여 충남대학교 에서 사회학 전공으로1982년에 졸업하시고 1988년 6월 1일 도미하여 미드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로2003년 졸업하신 후 미주리 뉘나스터 침례교회에서 2003년 8월 24일 목사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알버커키로 오셔서2004년 12월부터 뉴멕시코 앨버커키 한미침례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섬기셨고 뉴멕시코 한인교역자 협의회를 통해서 한인교회의 단합과 한인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사모님, 윤혜경(Elaine Youn) 과 따님, 레이철 윤(Rachel Youn)이 있습니다.

(고) 윤성열 목사님의 장례예배는 아래와 같이 오는 9월6일 토요일 알버커키 감리 교회에서 김의석 목사님의 집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인 여러분께서 (고) 윤목사님을 보내는 장례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9월 6일(토) 오전 11시
장소 : 알버커키 감리 교회(Korean-American Methodist Church)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문의처: (505) 980-4564 이경화 장로
Email : voiceofnm@gmail.com
웹사이트 kamcabq.com 에서 지도참조

>> UNM, .. 4 페이지에서계속 >>

의대생, 레지던트 포함)가 2026 회계연도의 1,108명에서 2035 회계연도의 2,19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알버커키저널 2025년 7월 27일
UNM plans major medical school expansion aimed at addressing physician shortage
Natalie Robbins / Journal Staff Writer

>> 8 페이지로 계속) >>

지역소식

>>산타페, 미국 최고..(계속)>>

토마시타스(Tomasita's)는 이 주의 전통 요리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컴포트 푸드입니다.(It's comfort food)” 주인 조지 건드리가 말했다. “1600년대부터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배해 온 주요 식품재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뉴멕시코에는 매우 독특한 음식이 있고, 이는 문화적 경험에 도움이 됩니다.” 건드리는 산타페가 “확실히, 100%”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건드리(Gundrey)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38세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잠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그는 돌아온 후 “산타페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진짜예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건드리가 산타페에 대해 말했다. “기업이나 체인점, 체인 레스토랑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작은 공동체예요.”

요약번역 출처:알버커키저널 2025.7.8

2025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에서 박광종 교수,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음

지난 8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 경남 창원에서 ‘2025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국내외 한인 여성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2001년 시작 이후 올해로 24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는 ‘KOWIN 25년, 더 큰 회

망과 변화를 향해’라는 주제로 열렸고,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리더 500여 명이 모여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표창을 뉴멕시코에서 봉사해온 박광종 지회장이 받았다.

보도에 나온 표창의 내역을 보면

- (1) 14년간 뉴멕시코 한국교사로 봉사하며 차세대 한국어교육과 한국인으로서의 긍정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힘씀
 - (2) 11년 동안 뉴멕시코 지회장으로 봉사하며 차세대 교육과 아시안 권익신장을 위해 아시안가족센터와 뉴멕시코 한인회, 한국학교와 연대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
- 으로 되어있다.



표창장을 수여받은 박광종 지회장

Kowin 지역담당관 선임 지역으로는 뉴질랜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미국 동부, 미국남부, 미국서부, 베트남,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과테말라 등23국에 25명의 담당관이 임명되는데 박광종 지회장은 미국의 남부 담당관이 되어 아틀란타, 달라스, 뉴멕시코를 11기와 12기를 역임하게 되었다.

산타페 교회에 추석근 담임 목사 부임

산타페 한인 교회는 지난 4월부터 담임 목사님의 공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로 교회를 지켜가 든중 기도응답을 받아 8월 10일 주일을 기하여 추석근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추석근 담임목사

로스알라모스와 산타페의 한인으로 구성된 교우들은 그들의 기도응답에 감사하고 있으며 부임하신 추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있다.

뉴멕시코, 양자 컴퓨팅 발전을 도모

양자 프런티어 프로젝트(Quantum Frontier Project)는 국방 기관과 주 정부로부터 최대 1억 2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9월 3일 알버커키 저널에서 일면기사로 내놓았다.

루잔 그리삼 주지사는 주와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DARPA)의 최신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방 기관의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양자 프런티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양자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검증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관계자들은 이 협력을 통해 DARPA와 뉴멕시코가 연방 기관의 이니셔티브나 프로젝트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활동에 4년 동안 각각 최대 6,0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양자기술에 핵심이 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기존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하여 양자 역학 원리에 기반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뉴스

지난 7/8월 미 국내 주요뉴스

7월 4일 - 텍사스 중부 대홍수

텍사스 중부 힐 컨트리와 그 하류 지역에서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했다. 과달루페강의 수위는 단 몇 시간 만에 5 ~ 11 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최소 41명이 실종되었다.

7월13일 - 그랜드 캐니언 노스림 산불 피해

빠르게 번지는 산불로 그랜드 캐니언 노스 림에 있는 유서 깊은 롯지와 수십 개의 다른 구조물이 파괴되어,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의 출입을 이번 시즌 동안 폐쇄한다고 공원 당국이 7월13일 일요일에 밝혔다.

공원 관리자 에드 키블은 일요일 아침 회의에서 공원 내 유일한 숙박 시설인 그랜드 캐니언 롯지가 불길에 휩싸였



그랜드 캐니언 롯지가 산불로 소실됐다.

다고 공원 관리인과 직원, 그리고 다른 주민들에게 전했다. 그는 방문자 센터, 주유소, 폐수 처리 시설, 행정 건물, 그리고 일부 직원 숙소를 포함한 50~80 개의 구조물이 소실되었다고 밝혔다. 공원 측은 이 지역의 “수많은” 유서 깊은 Cabin들도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을 방문하며, 대부분은 더 인기 있는 사우스 림(South Rim)으로 향한다. 노스림(North Rim)은 계

절에 따라 개방된다. 공원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목요일 산불로 인해 대피했으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노스림은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NBC News July 13,2025 By The Associated Press

8월 15일 - 2025년 러시아-미국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해 우크라이나 갈등 해결 방안을 약 2시간 45분간 논의했다.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8월 26일 -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1위로 아이슬란드가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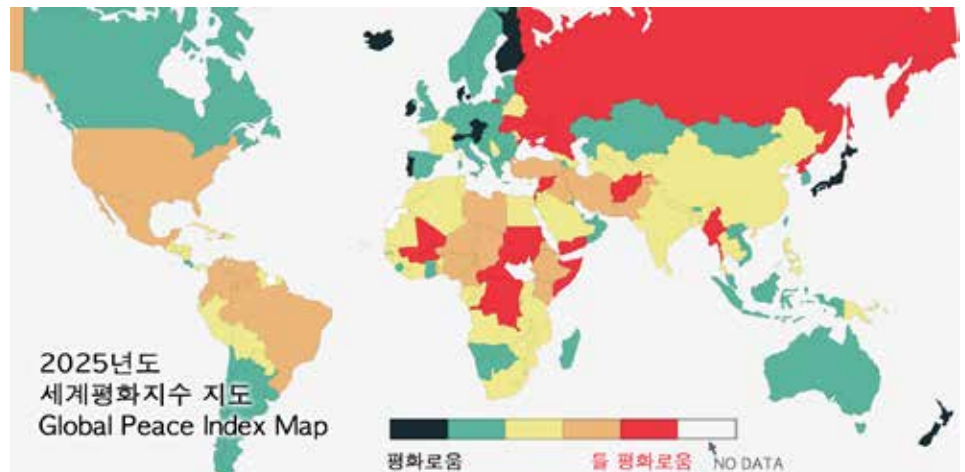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발표한 ‘세계평화지수 2025’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는 1.095점으로 가장 평화로운 나라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2008년 평가 이후 17년째 줄곧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

IEP는 23개 지표를 토대로 사회 안전·안보 단계, 국내외 갈등 규모, 군사화 정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평화 수준을 측정해 나라별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국은 163개국이며 점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다.

2위는 작년과 같은 아일랜드(1.260점)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3위 뉴질랜드(1.282점), 4위 호주(1.294점), 5위 스위스(1.294점)가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는 가장 상위는 싱가포르가 6위,이어서 일본이 12위, 말레이시아 13위였고 대만이 40위,한국이 41위였다. 북한은 149위를 기록했다.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14위로 가장 상위의 나라이고 코스타리카 54위, 미국은 128위(2.443점), 멕시코는 135위였다.

참조출처: 조선일보 2025.08.31, 웹사이트: www.visionofhumanity.org



프락시스 헬라어 신약성경이 나오기까지 (5)

김기천

알버커키감리교회
담임목사



코딩의 도움을 받아서 헬라어 원문 아래 뜻과 발음을 한글로 넣는 작업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헬라어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헬라어 원문을 기계적으로 만으로는 번역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로 프락시스 신약성경을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헬라어 한국어 두 언어의 기본적인 차이를 잠깐 소개해본다면 헬라어 단어들은 어미변화 즉 각 단어 끝의 변화에 의해서 문장 관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명사나 형용사를 보면 단어 하나에 격과 수와 성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격”이라 함은 그 단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지 소유의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지 이미 한 단어 안에 표시되어 있지요. “수”라 하면 그 단어 안에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이라 하면 같은 단어 안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인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어는 한국어에 비해 문장의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한글은 주어 목적어 동사 중심으로 문장이 전개된다면 헬라어는 동사 목적어 주어 또는 목적어 동사 주어 순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장을 한글이나 영어처럼 규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혼란을 겪곤

합니다.

위와 같이 변화되는 단어들도 있지만 변화하지 않는 $\delta\acute{\epsilon}$, $\mu\acute{\epsilon}\nu$, $\kappa\alpha\iota$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불변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불변사들은 문장 연결 관계에서 강조나 대조를 암시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번역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프락시스 성경에서는 번역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한글로는 “그”라고 번역할 수 있는 $\delta\acute{o}$, η , $\tau\acute{o}$ 등 헬라어 관사는 구문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번역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프락시스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헬라어 동사 체계 또한 한국어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헬라어는 동사 자체로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또한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자체로 시상 즉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표현합니다. 문제는 동사 자체로 그 동작이 일회적인지 진행하고 있는지 결말이 났는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헬라어 한 단어 아래 한글 번역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았습니. 예를 들면 같은 동사라도 어미의 변화에 따라 단수 과거 동사는 단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미완료 동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반복되고 있거나 습관적인 동작을 표현합니다. 이외에도 동작을 하느냐 동작을 받느냐에 따라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구별하지요. 기계적으로 본다면 가정법 동사 사이이면 구문론적으로 보면 명령문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주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구문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전체 책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주 설명은 짧게 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목적절은 주절 동사 다음으로 나옵니다. 영어에 영향을 준 헬라어 역시 주절 동사 다음에 목적절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 개의 목적절이 언급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여러 개의 목적절로 된 긴 문장을 끊어서 절수를 나누어 놓았지요. 영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데 한글에서는 어순 상 동사를 맨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번역할 경우에는 동사를 맨 끝 절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로 원문과 다른 문장 배열이 생기기 때문에 프락시스 번역에서는 괄호를 사용하여 이동관계를 표시했습니다. 문제는 헬라어 단어 하나에 많은 정보들을 포함되어 있기에 헬라어 본문 아래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려면 문단 모양이 틀어져서 어떤 줄은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줄은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책이 보기 좋게 나오려면 이 부분 역시 최종적으로 편집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필

폭을 잘 대라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어머니는 명문가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책가방을 메 본 적도 없는 분이였다. 1900년 초에 세상에 태어나 한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가셨다. 누구의 세상살이엔들 어려움이 따르지 않으랴만 아들 둘 딸 둘을 길러 내고 구십 년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남다른 고초도 겪으셨다.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 내셨을까 싶다.

성질, 태도, 언행 따위가 안온하고 침착하며 단정한 것을 암전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아주 암전했다. 모양이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솜씨에도 맵시가 있었다. 당신의 시절에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인 요리, 바느질은 물론 길쌈까지 손을 놀려서 무엇을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다. 귀한 아들이라고 여름이면 삼베나 모시로 지은 옷을 입혀 주기 바쁘게 내달렸다가 흠을 잔뜩 묻혀 들어오고는 하던 철없는 나였다.

손끝이 여물다는 주위의 평을 받던 어머니. 여물다는 말은 손을 놀려 하는 일솜씨가 좋다는 뜻 이외에 살림 따위를 알뜰하게 하며 무슨 일이든 뒤탈이 없게 빨리 그리고 시원스럽게 끝낸다는 뜻도 들어 있다. 논농사가 주이던 고향 마을에서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한 집의 경사는 곧 온 마을 잔치였다. 대사 때는 음식을 비롯해서 장만할 것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옷감을 마르는 데에 번번이 불려 가고는 했다.

어머니는 베푸는 분이였다. 양식이 풍부한 마을이라 구걸하는 사람

이 많이 피었지만 그 많은 걸인들을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었다. 선달 대목이나 정월 대보름이면 찾아오는 자미승에게 재미를 넉넉하게 주어 보냈다. 머슴은 물론 품앗이 일꾼들에게도 항상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했다.

처가살이 때문이었던가, 아버지는 평생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셨다. 평소에는 어머니를 친절하게 대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말린다거나 술만 들어갔다 하면 폭군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었다. 집안 식구를 혹독하게 나무라고, 폭력 행사도 주저하지 않던 아버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더할 수 없이 무자비해져, 어린 내가 견디기 어려운 적이 여러 번 이었다. 아버지는 회갑을 못 넘기고 세상을 뜨셨지만 어머니는 큰 아들과 큰 딸을 먼저 보내는 고통 속에서도 오래 살고 가셨다.

‘폭’이라는 명사는 썸의 뜻을 나타낸다. 썸은 미루어 가정하는 것을 뜻하며, ‘액땀한 썸치다.’ 고도 하고 ‘돈을 잃을 썸치고 도박을 한다.’ 고도 말한다. 살다 보면 잘 안 될 뻔하거나 잘 안 되었던 일이 의외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일이 그만한 정도에서 끝나 달가울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만하기 다행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달랜다.

어릴 적부터 늘 나를 달래는 어머니의 말쑤미 있었다. ‘폭을 잘 대라.’ 는 말을 두고 쓰셨다.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쾌하더라도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말라는 뜻이었다. 참을성이 적고, 항상 서두르고, 노상 안달을 부

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어렸을 적의 내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더할 나위없이 알맞는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은 살다가 당한 내 고난까지도 이겨 낼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어머니의 양지良知는 뛰어났다. 틀림없이 당신도 폭을 잘 대며 갖은 고초를 이겼기에 구십이 넘도록 장수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삶에서 부딪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잠재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은 분이였다.

나이가 동떨어진 누나 다음에 나를 낳게 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얻은 나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라고 정화수를 떠놓고 늘 조왕신에게 빌던 어머니였다. 다 큰 다음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빌었다. 집을 떠나 광주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는 교통이 몹시 불편하여 주말이면 사십 리 길을 걸어서 집에 가기도 했다. 집은 곧 엄마였고, 엄마를 못 보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곁에 두고 싶어서 잠을 설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지어 주시던 새벽밥을 먹고 집을 나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되도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을 향상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라고 믿고 살았던 탓에, 아무 것도 해 드리지 않았던 것만 같다. 정성껏 섬기지 못한 죄를 빌 처지도 아니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 뼈에 사무친다.

기후대전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금년 여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기후는 유난히 유별 났었습니다. 신문들은 앞 다투어 일면 톨 기사로 ‘미 홍수에 지하철 잠길 때, 유럽 섬씨 46도 살인 더위’ ‘지구촌 날씨 왜 이래’ 등등의 제목으로 이상 기후를 앞다투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전에 없었던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즉 기후재앙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뉴저지주 일대에서는 지난 6월 기습 폭우가 쏟아 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길에 차량이 휩쓸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 했고, 지난 7월에는 Texas 중부 내륙지역의 과달루페 강 유역에 내린 집중 호우는 실로 엄청난 맹위를 떨쳐 비가 오기 시작하지 불과 45분 만에 강 수위가 거의 10 미터나 상승한, 이른바 Flash Flood 였는데 이 무서운 홍수로 129명이 숨지고 160여명이 실종되는 참사를 빚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바야흐로 우리 앞에 직면한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어느 곳에서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었다느니, 어느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가 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강조 했다는느니, 어느 곳에서는 집중 폭우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 되었다는 보도들은 이제 새로운 것 없는 식상할 정도로 많아져 버렸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여름

은 특별히 더운 날씨로 고통 받았습니다. 남유럽 휴양지들에 닥친 불볕 더위로 여름 휴가 지도가 변하고 있으며 특히 Greece에서는 폭염으로 관광객들이 쏠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테네 관광객 오후 출입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Asia 기후 위기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 했다고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UN 산하의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섬뜩하게 경고 하였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내린 100년만의 홍수로 18만 넘는 이재민이 발생 했고, 태평양 고기압의 이례적인 높은 기온 상승으로 일본에 이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 했으며, 러시아에는 생뚱맞게 생각지도 못한 여름 한파로 엄청난 양의 눈폭탄이 쏟아 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기후는 인도, 방글라데시에 닥친 기후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갠사스 삼각주 넓은 해안지대는 지난 25년간 25 내지 30 cm 정도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부르부리아 마을은 거대한 홍수로 100m 길이의 둑이 무너져 놓지는 물에 잠겨 버렸고, 물에 떠다니는 집들이 비일비재하여 망연자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Asia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 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온도가 상승, 온실 가스가 만든 기후위기

들은 다 알고 있는 바 입니다. 19세기 제1차 산업혁명 이후 각 나라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대량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UN에서 이런 무모한 행동은 자멸하는 길인 만큼 각국이 자체 해 주기를 여러 차례 호소 하였습니다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한이 없는 욕심과 탐심은 이를 아랑곳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경고가 내려진 이래 이미 대기의 온도가 1도 내지 1.5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기록적인 더위 뿐 만 아니라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Hurricanes, Typhoons, Willy Willies 같은 자연현상들은 더욱 과격하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 나아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도달한 것 입니다. 유감스럽게도 UN에서 아무리 호소하고 경고하며 외쳐도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어, 이미 이 문제는 정치, 경제의 수준을 넘어 이제 신앙의 문제에 도달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 희생 당하는 무수한 생명들을 보면서 가만히 좌시해서는 안 될 일 입니다.

온 지구촌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의 경고를 통

하여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 드리는 운동, 인간의 욕심과 더러운 죄악을 회개 하는 운동, 하늘을 바라 보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새 운동, A Great Awakening Movement 가 절실히 일어 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간단한 것을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 인간은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알량한 뜻에 설복 시키려 하지 말고 그분께 설복을 당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여! 각자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니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되어 그분의 말씀에 매일 때가 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권능의 주님께서서 함께하시니 세상을 끝내 이길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창 1:28) 하시며 고귀한 사명과 왕권을 우리에게 수여 하시었습니다. 이미 새사람 된 성도는 잃었던 왕권을 주님의 피 공로로 다시 찾게 되었으니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밝히 나타내는 이 시대를 사는 ‘남은자’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사악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자’와 함께 일 하셨고, 지금도 일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일 하실 것입니다.

비록 소수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자’인 우리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다가 종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Hallelujah!

신간소개

성공적인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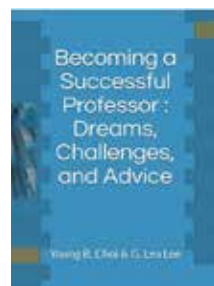
꿈, 도전, 그리고 조언

미국 유학을 꿈꾸며 더 나가서 대학 교수로 일 할 뜻이 있는 한국인 젊은 이 또는 미국 대학에서 재학 중에 있는 유학생에게 아주 필요한 책이 나왔다. 미국 Regent University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영배 교수와 Old Dominion University의 리아 리 교수가 공저로 그들의 30년이 넘는 교육 경험을 통하여 미국에 유학할 뜻이 있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랜 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정리하여 두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아마존을 통하여 출간한 “성공적인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꿈, 도전, 그리고 조언”이란 제목의 책은 유학을 꿈꾸는 학생이나 첫 교수직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익히고자 하는 연구자, 혹은 다양한 동료를 보다 잘 지원하고자 하는 선배 학자 등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은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같은 7월에 출간한 영문판 “성공한 한국인 교수들의 여정: 경험, 성찰, 그리고 조언” 역시 이 책은 교수의 진로 안내서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계 학자들이 경쟁적이고 복잡한 미국 학계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끈기, 문화적 타협,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자 기록이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 성찰, 그리고 조언들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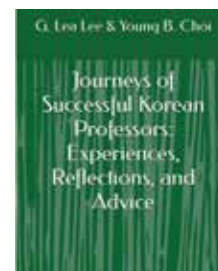
저자 최 영배교수는 2020-2023년까지 4년 간 북미한인교수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까지 북미 한인교수협회(KAUPA: Korean 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에서 발행하고 있는 저널인 KAUPA Letters의 수석편집자로 봉사하고 있다.



최영배 교수



리아 리 교수



도서 정보와 아마존 링크를 아래에 소개한다.

Becoming a Successful Professor: Dreams, Challenges, and Advice (Korean), Young B. Choi, Kindle Direct Publishing (KDP), Amazon, July 2, 2025. (한글판 - 성공적인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꿈, 도전, 그리고 조언)

<https://a.co/d/4rmvQyN>

Journey of Successful Korean Professors: Experiences, Reflections, and Advice, Young B. Choi, Kindle Direct Publishing (KDP), Amazon, July 5, 2025.

(영문판 - 성공한 한국인 교수들의 여정: 경험, 성찰, 그리고 조언)

<https://a.co/d/4rmvQyN>

기독교 윤리 (12)

마 5장 27-32절

결혼의 의미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1. 최초의 결혼의 의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번째 결혼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초의 결혼의 하나님의 주례사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의미가 두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라,

둘째는 합하여 하나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첫번째 의미는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제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돌보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서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을 며느리에게 떠나보내는 것이며, 사랑으로 정성껏 키워온 딸을 이제는 사위에게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말씀은 이제는 결혼하는 자녀의 모든 것을 양가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 보낸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두번째 의미는 합하여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둘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서로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한 두 가지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하

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혼자서 살아왔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합해서 살아갑니다.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두 몸이 하나된 몸은 이제 몸으로 친밀하고, 두 마음이 합하여 하나된 마음은 마음으로 친밀하고, 두 돈이 합하여 하나된 돈이 되는 것은 돈의 문제에서도 부부는 친밀합니다. 하나된 신랑과 신부보다 더 친밀한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사이 중간에 부모님이 계셔도 안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도 안됩니다. 오직 결혼으로 하나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친밀감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사이가 되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이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가정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2. 결혼의 위기인 간음과 이혼

이토록 소중한 결혼이 위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두 가지 위기는 간음과 이혼입니다. 결혼을 깨뜨리는 위기는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

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규정을 행위로만 이해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간음에 관한 감사도 나와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눅 18:11). 바리새인은 간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행동 이전에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입니다. 마음의 간음이 시작되는 첫 출발은 눈입니다. 그리고 눈은 손으로 연결됩니다. 눈과 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간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욕은 잘 알고 있

지역소식

알버커키 노숙자 지원 계획

알버커키 저널에서 버나리요(Bernalillo) 카운티, 주택 및 노숙자 지원 사업에 주 정부 기금 8천만 달러 이상이 사용될 예정이란 기사를 올렸다. 카일리 가르시아 기사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주 정부는 버날릴로 카운티 전역의 주택 사업과 노숙자 지원 사업에 8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최소 1천명의 노숙자들의 숙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앨버커키 쉼터 시장은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8천만 달러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을 받게 될 프로젝트는 포블라나 플레이스 아파트(Poblana Place Apartments)입니다. 버나리요 카운티가 노인 및 실향 청소년을 위한 인력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매입 협상 중인 84세대 규모의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818 Fourth NW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약 1,8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701 Coors NW에 건설 중인 West Mesa Ridge 다세대 주택 시설은 최대 448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1,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400 Gibson SE와 7440 Jim McDowell NW에 위치한 종합 서비스 허브인 Gateway and Youth Homelessness Facility는 프로그램, 자원 및 병상 수 확장을 위해 1,6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출처: 8-27-2025 Albuquerque Journal/ 카일리 가르시아 기자

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과 스스로 언약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기 31:1). 우리의 눈과 언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남의 아내, 남의 남편에게 눈이 돌아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언약한 결혼 서약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 속에 온갖 간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남편과 아내와 이혼할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혼을 결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혼에 관한 통계를 찾아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혼율은 거의 50%에 이릅니다. 그 해 결혼한 가정 대비 이혼한 가정의 비율이 절반입니다. 열 가정 가운데 최소한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요. 청소년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기혼 남녀 대상 설문조사를 하면 40% 이상이 남편과 아내 외에 사귀는 애인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는 기독교인의 이혼율을 조사하니 32%에 달하는데 일반 미국인 부부의 평균 이혼율 33%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3. 존 가트맨 박사의 부부 상호 관계 연구

최성애 행복연구소 소장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만 보아도 행복한 결혼인지 이혼할 지 95%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 예로 러시아의 대 문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

키는 둘 다 연하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16살 연하,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와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을 어땠을까요? 미국의 존 가트맨 박사는 관계의 과학으로 3600쌍의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나타난 결혼관을 찾아냈는데, “행복한 결혼은 비슷하다.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관은 “결혼은 연마하듯이 노력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한다. 그러면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톨스토이는 아내 소피아와 갈등을 하다가 아내를 떠나서 길에 돌아다니가 죽었고, 반대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내 안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부부의 상호작용을 검사해서 부부의 상호작용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 우호감을 계속 쌓아나갑니다. 불행한 부부는 서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도 오해를 합니다. 둘째, 아주 중요한 대화 방법을 보면, 행복한 부부는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데, 불행한 부부는 서로 멀어지는 대화를 합니다. 세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지지해줍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막거나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결혼과 이혼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독후감

독후감 “다시 집으로” 를 읽고

김장숙

First Nations
Community Health Source
치과의사/목사사모

집에 와보니 소포가 와 있었다. 엘에이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지가 나 보고 읽어보라고 책 한 권을 보내 주셨다. 책의 이름은 “다시 집으로” 방향하던 아들과 죽음을 생각한 엄마의 회복 이야기란 표지 설명이 있던 책이었다. 이 책은 크리스토퍼 위안과 안젤라 위안이 공동으로 집필해서 나온 책이다. 제 1 장 ‘나의 작은 세상에 들이닥친 파국’은 엄마 안젤라가, 제 2 장 ‘커밍 아웃’은 아들 크리스토퍼가 썼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서 32장에 ‘마침내 집으로’는 아들이 썼다. 뒷 부분에 뒷 이야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책을 읽고 난 후 묵상과 나눔: 기도, 구원, 거룩한 성 생활. 예를 들어보면 1단계: 제 1장부터 제 5장까지 읽고 나눔 1. 레온과 안젤라는 아들의 방에서 포르노 테이프를 찾은 뒤 아들과 대면했다. 당신이 부모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지막으로 감사의 글이 있다. 물론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 주신 분들을 열거하며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시편 56장 12-13절을 인용하며 책을 마감한다. 이 책은 2011년에 Out of A Far Country 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판 됐으며 한국에서는 2015년에 이주만 옮김으로 KOREA.COM 에서 책을 만들었다.

시카고에 사는 중국 이민자 안젤라는 타이거맘(전형적인 중국식 자녀교육을 말한다. 학교 공부 열심히 시키고, 피아노 가르치고, 일류 대학에 진학하도록 감독하며 열성으로 지도하는 엄마)으로서 두 아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켰다. 동네에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했다. 책의 주인공 둘 째 아들 크리스토퍼는 로올라 치과대학을 다녔다. 안젤라의 남편 레오는 그녀와 결혼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두 부부가 고생을 하여 한 사람은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여 결국은 레오는 박사 학위가 두개 있는 성공적인 치과의사로서 살아갔다. 그들은 치과 병원을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크리스토퍼가 졸업하여 치과의사가 되면 함께 병원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에 방문한 크리스토퍼는 자기가 게이라는 정체성을 부모 앞에서 밝혔다. 그의 정체성 고백에 충격을 받은 엄마가 크리스토퍼에게 가족이나? 동성애냐? 선택을 하라고 말한다. 이에 그는 집을 당장에 박차고 나가서 떠나간다. 그의 집을 떠난 방황의 생활이 거침없이 시작됐다.

속수무책으로 아들에게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남편이 못마땅하고, 그 남편의 보살핌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안젤라는 깊은 절망의 늪 속에 빠졌다.

안젤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지루한 인생을 살다가 아들로부터 게이 고백의 커밍아웃을 받은 이후에 회복될 수 없는 결혼생활의 무의미 속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집을 나섰다. 아들을 한번만 더 만나보고 죽으려고 했던 안젤라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메이고 있을 때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 후에 안젤라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물론 여기에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남편 레오도 교회에 나가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이들 부부는 함께 손잡고 교회에 가며 기도하고 대화하는 믿음의 가정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들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도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간다. 이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아들이 회개하여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책을 보내주신 분에게 카톡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어제 하루 종일 크리스토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가 마약 딜러 죄로 잡혀서 감옥에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이의 정체성과 헤어날 수 없이 빠져든 마약의 중독에서 그의 습관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그의 엄마 안젤라는 치과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제적을 당하게 되어 학장을 만날 때에도, 형을 언도받고 결정되는 법정 재판관 앞에서도 선처를 부탁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옳은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 누구나가 이렇게 아름답고 품고 베푸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주어진 인생 길에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은

1. 엄마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분별

<18페이지로 계속 >

수필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바람이 불니다. 어디 있다가 왔는지는 몰라도 금방 알만한 바람입니다. 여름내내 활활 불타던 한 낮의 열기가 어느새 바톤을 넘긴 것일까? 살랑 가을바람 입성입니다.

자연의 순리는 질서가 분명합니다. 여름내 찢찢 끓는 열기 못지않게 무성하던 나무 잎새들이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지 잔잔한 잔바람에도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잎새들은 그대로 밟히고 부서진 채로 땅을 덮으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려는 듯 합니다. 맨 밑에서 무성한 잎들을 바쳐주느라 힘에 겨웠었나 불쭙불쭙 튕겨져 나온 뿌리 주변에 엉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 뿌리를 기억하나 봅니다.

자연은 가까이 다가가 볼수록 참 아름다운 메시지를 나누어 주곤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진행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곤 합니다.

쌀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면 쌀값이 폭 떨어져서 허탈하기만 했던 풍년! 뽕인가! 흉년이 들면 또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일찍부터 하늘지기라도 된 듯 하늘만 우러르며 천기를 살피던 세대!

한 줌 바람에도 과분한 감사로 가슴을 펴던 우리들 세대가 민주화 운동 격동기, 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치느라 숨 고르기도 한참 분주한 판에 이제는 빅데이터니, 드론, 로봇, AI 등 쪼끄만 버튼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엄청나게 깔끔한 알파

세대를 맞게 되니, 뜬금없이 아주 오래전 옛날 김장철 생각이 떠 오릅니다. 쫄쫄 언 손을 비벼 녹여가며 서로 푸마시 하시던 어르신들의 인정이 고연히 그리워 집니다.

‘사람의 발바닥이 두꺼운 까닭은 인생이 가시밭 길이기 때문’ 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웃지 못하고 지낸 날은 무론하고 실패한 날이라고 일침을 주던 친구가 오늘은 참 편안한 얘기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째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추와 도토리도 빵았고, 떡도 찌 주고, 참기름 들기름도 짜 주는 기름집입니다. 그 기름집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오는 게 있었으니, 빛 바랜 벽 한 가운데 시 한 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는 윤동주 시인의 널리 알려진 서시 였습니다. 시장에서 기름이나 짜는 친구가 시를 좋아 하다니...?”

어디 어울리거나 하는 소리인가요? 해서. 어느 날 손님이 뜸한 시간에 물었답니다.

“저 벽에 윤동주 시를 붙여둔 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으음!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구먼.”

“무슨 비밀이라도?”

“아~ 그런건 아니구. 손님 가운데 말이야. 꼭 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짜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치! 내 아내도 국산 참기름을 좋

아하지.”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국산 참기름을 짤때, 값이 싼 중국산 참깨를 반쯤 넣어도 손님들은 잘 몰라. 아마 자네도 모를걸? 30년째 기름집을 하면서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속에서 욕심이 올라 올 때도 있단 말이야. 국산 참기름을 짤 때, 값이 싼 중국산 참깨를 아무도 몰래 반쯤 넣고 싶단 말이지. 그런 맘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 그 때마다 내 손으로 벽에 붙여놓은 저 시가 나를 내려다 보구 있더라구. 하하! 자꾸 마주치니 자꾸 보게되고 자꾸 읽게 되더라고.”

“...”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구절을 천천히 몇 번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시켜면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거였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저 시가 나를 지켜준 셈이네. 저 시가!

저게 없었으면 까짓거! 그냥 양심 좀 속이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

“그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지켜준 그 시 구절 구절을 자그마한 소리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찡~ 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허투로 살지않고 그렇게 양심을 속이거나 거스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하며 버티고 견디어 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

<18 페이지로 계속 >

<독후감 “다시 집으로” >

<16 페이지에서 계속>

하며 인내하여 끝까지 이루는 기도
2. 크리스토퍼가 묵상 중에 깨달은 것: 동성애, 이성애 라는 정체성에 쫓기기 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가치를 두는 것
3. 엄마가 크리스토퍼에게 “어렸을 때 엄마가 네게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이었나?” 하고 물어봤을 때 “말보다는 마음에 더 신경을 써 주었더라면”이라고 대답했던 것

며칠이 지나도록 이 책의 주인공이 제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제가 Chat GPT에게 물어봤다. 책의 주인공이 지금은 50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가? 아직도 활동을 하시는가? HIV positive 진단을 받았는데 건강은 어떻게 되었을까? 에이즈로 진행되어 죽었을까? 책의 후반부에 있는 “그 뒷이야기”에서 소개하기를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에서 크리스토퍼 2010년 9월 30일날자로 부연 설명이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2001년 2월에 감옥에서 형기를 앞두고 출시하기 전에 무디 신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부모님이 도움으로 내게 된다. “제가 치과 대학을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졸업을 못했잖아요. 성경을 좀 더 배우고 공부하며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입학원

서를 마련하여 감옥으로 보내 달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는 그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감옥에서 쓰레기 같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바라보던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믿게된 그에게는 잘 아는 믿음의 동료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밖에 없었다. 신학교 입학원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추천참고인들을 세 명을 선정 할 때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신학교 입학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 그 신기한 내용은 책 속에 들어있다.

입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하고, 강연하며 지금껏 살아오는 모습을 소개해주면서 HIV 양성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육체적 연약함을 언급했다.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찾는다. 13년 동안 이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식사와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HIV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있어서 곧 약물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시간의 긴박성을 가지고 사역에 충실해야 한다.

Chat GPT는 그는 치료를 받아 건강해 졌고 지금 이러이러한 활동과 강연을 세계 곳곳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유튜브를 소개해줬다. Christopher

Yuan at Momentum Youth Conference 2025-Session Two 지금부터 4 weeks ago 이니까 7월 중에 한 강연 내용이다.

그는 매우 건강해 보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지 말하였다.

I once was blind and now I see.
I once was lost and now I'm found.
I once did not believe and now I believe in the son of God and his name is Jesus.

<내 소유는 이것이니~>

<17 페이지에서 계속>

습니다.” 었습시다.

그렇습시다.

우리도 다 마땅히 그렇게 살려고 이 쑥맥 같은 가난을 시도 때도 없이 쑥쑥맥처럼 다독이곤 합니다. 뿐 아니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고된 삶에 은택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청명 광활한 가을 하늘같이 풍년도 흉년도, 아니 저 춤 높은 담장에 걸려버린 빠져린 한숨도, 전혀 대낮 공상같은 알파시대도 다 바람처럼 전설처럼 지나갈 것이나 그러나, 할렐루야! 오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를 진행하시며 은밀한 중에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 성경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꼬옥 안아 봅니다.



Tuesday-Friday 11:00am-2:30pm
4:30pm-8:00pm
Saturday 11:00am-8:00pm
Sunday - Monday Closed



전화: (505) 308-3179
웹사이트: kokioabqnm.com
주소: 8019 Menaul Blvd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10



6001 Winter Haven Rd NW
Ste G Albuquerque NM 87120
(505) 503 - 8699

Tue-Sat 11:30 AM - 8:00PM
Sun-Mon Closed

Popular Dishes: Spicy Chicken, Beef Bibimbap, Japche
Beef Bulgogi, Chicken Fried Rice, Tteokbokki ...

신유사역은 교회의 사명이다.

Healing Ministry is the mission of church

신경일

국제신학원
명예학장
전 Chaplain, UNM
Medical Center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35 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랑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 하시며 (preaching)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healing)”

4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산유 사역은 2/3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배도 하고 타락한 무기력한 현대 교회를 신유와 위로 사역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유”란 무엇인가?
병을 고치는 것은 Divine Healing 이라고도 합니다. 병이 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것이지 왜 신유를 하는가? “신유”라 고 하면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합니다.

- 1 신유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
- 2 신유를 신뢰하지 않는다.
- 3 신유는 사도시대에 있던 것이다.
- 4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 5 강단에서 신유 설교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신유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회개 (Repentance)가 전제 조건이다.

첫째는 우리가 원수 마귀 (Demon)를 대적 해야 한다. (Resist)

야고보서 4:7 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Submit yourselves, then,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두째로 마귀를 꾸짖는것이다. (Rebuke)
마태복음 17장 18절에는 “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Jesus rebuked the demon and it came out of the boy, and he was healed from that moment.

셋째는 선포하는것이다. (proclaim)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병든자에 대해 대적하고 꾸짖고 선포하는 것 이다. 사도행전 3장 6, 7절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미네소타에 100세 된 숙모가 계시는데 충실한 기독교인 (Faithful Christian) 입니다.

지금도 자기전에 주기도문을 드리고 교회의 찬양대 Soprano 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지난 달에 넘어져 상처를 입어서 몸의 상태를 검진 (check) 하기 위해 8월초에 신사모와 함께 미네소타에 다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됐습니다.

100세 된 숙모를 이곳에 모셔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Power of Attorney, Doctor's Release, Moving company 등을 수속 중 입니다.

지금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 합니다. 서울 김포 영광교회 박영민목사님과 성 도님들, 미주에 있는 Ruth 김명자 전도사 작전실 기도회 기도팀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총력으로 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꼬뽀소 용사들 이여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New Mexico 에서
신경일 목사

뉴멕시코의 농촌 의료 (Rural Healthcare in New Mexico)

최혜민

UNM
생화학 전공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민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학원서(애플리케이션)를 제출할때 선택에 하나인 University of New Mexico Combined BA/MD Program에 등록했습니다. 합격 되고 이제 대학교 3학년 생화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BA/MD Program은 뉴멕시코에 의사가 더 늘어나도록 장려하기위해 뉴멕시코 출신 고등학생들이 많이 합격 되어 4년 동안 UNM에서 공부하고 UNM의과대학(School of Medicine)에 바로 들어가겠끔 도와줘요. 뉴멕시코에 의사들이 더 필요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2년 마친 후 여름 방학 동안 Summer Practicum이라는게 있어요. 학생들이 뉴멕시코의 작은 도시에서 한달 동안 살고 shadowing하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로즈웰에 살았습니다. 한달 동안 저랑 반 친구들 2명과 같이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 STEAM, Joy Senior Center, Harvest Ministries에서 자원봉사하고 Roswell Surgical Center, Arnett Medical, Transaero Medevac에서 shadowing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많이 봤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로즈웰에는 총 4만~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지만, 공립 병원은 두 곳만 문을 엽니다. 현 행정부가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승인함에 따라, 이 두 병원도 이제 폐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뉴멕시코 주민의 의료 서비스

에 위협이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사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이전에는 25만 달러로 제한했던 것을 수백만 달러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정책입니다. 로즈웰의 보건 위원회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이 정책이 초래하는 피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의사의 3분의 1이 의료 과실 보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면서 뉴멕시코를 떠났습니다. 이미 의료 전문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의료 과실 보험 부담으로 인해 의사들이 주를 떠나면서 뉴멕시코 주민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로즈웰 위원들은 뉴멕시코 주 법률의 대부분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책은 변호사들이 의료 과실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하고 더 많은 승소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뉴멕시코 주민들이 치료, 진료 예약,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악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절망적인 심정이었습니다. 조이 노인 센터와 같은 곳들이 프로그램 기금 삭감을 당하고, 우리가 감독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의사들을 잃었던 병원들이 다시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

실에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위원회 및 의사들과 더 논의한 결과, 정책이 의료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이론을 배우고, 임상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 권익 옹호 활동을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증상을 치료하거나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환자의 사회적, 환경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한 사람을 온전하게 돌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 실습과 BA/MD 프로그램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질병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의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 있지만,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글이 의료 지원이 부족한 지역, 특히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저처럼 의료계에서 가장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직업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멕시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위의 글을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영어

영어이야기 (40)

Vaseline(바셀린)이야기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필자가 어렸을때 멘솔담(mentholatum)이란 연고가 있었는데, 멍이 들거나 벌레 물린데, 동상걸린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특효약이었습니다. 6.25때 군인들에게 보급되었었고, 당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연고(ointment)였습니다. 국내산으로 통일연고가 나왔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한양행에서 제조한 안티푸라민(Antiphylamine)은 벌레물린데



나 가려움증, 근육통, 요통등에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정상비약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들과 비슷한 그러나 용도는 조금다른 Vaseline (바셀린)을 상비약으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안티푸라민과 같이 여러증상에 사용되는 끈적끈적한 (goop) 물질인 Vaseline은 화학제품이 아니라 100% 순수 석유제품입니다. 젤리(jelly)처럼 보여 petroleum jelly(석유젤리: petrolatum)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원유(crude oil)를 Petroleum이라고 하는데, petra는 돌(rock or stone), oleum은 기름(oil)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어원입니다. 자동차엔진에 사용하는

gasoline(gas)을 영국에서는 petrol이라 합니다.

남자이름인 Peter도 돌을 뜻하는 petra의 남성형으로 그리스어의 Petros에 기원을 둡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돌쇠가 있습니다. Peter에 대응하는 여자이름은 Petra입니다. 1859년 영국출신으로 New York의 Brooklyn에 살고있던 젊은 화학자(chemist)인 Robert Chesebrough (치즈브러)는 생계를 위해 연료용 경유인 kerosene을 팔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ennsylvania에서 Oil strike가 일어나 생계(livelihood)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They earn their livelihood from farming. (그들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앞으로의 연료가 될것이라 확신한 그는, 큰돈을 벌려고, 석유가 나오는 유정(油井: oil well)이 있는 Pennsylvania의 Titusville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Chesebrough는, 석유를 퍼올리는 기기(drilling rigs)에 파라인같이 생긴 끈적끈적한 (gooey) 물질이 달라붙어 골치거리였지만, 한군데 유용하게 사용된곳을 살펴보니, 살이 베이거나(cut) 타박상(bruise)을 입었을때 그것을 바르면 쉽게 상처가 아무는것을 보았습니다. Chesebrough는 이 덩어리를 한줌가지고 New York의 자기 실험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정제하여 반투명(translucent) 물질을 추

출해내었는데, petroleum jelly (석유젤리) 또는 petrolatum으로 알려졌었으며, 그는 이것으로 1870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는 실험을 하기 위해 자기자신은 물론, 아내와 아이들의 손가락도 일부러 불에 데여 화상을 입히고, 상처를 낸후 이것을 발라, 빨리 치료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팔기로 작정한 그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던 중 Vaseline으로 정했는데,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물을 뜻하는 독일어인 Wasser(바세르)와 기름(oil)을 뜻하는 그리스어(Greek)인 elaion을 합성해 Vaseline이라 했다는 설과, 다른하나는 그가 찢든찢든한 물질인 petroleum jelly를 그의 실험실에 있던 아내의 꽃병(vase)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시 많은 의약품 이름에 “ine”라는 접미사를 붙였기에 “Vaseline”이라 명명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입안의 세균을 죽이는 입안세척용 mouthwash에 Listerine이 있는데, Joseph Lister가 처음으로 개발해, 상품명 이름을 그의 이름에 “ine”를 붙여 Listerine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caffeine, nicotine, morphine등도 “ine”를 사용한 예입니다. Vaseline의 영어발음은 “바셀린”으로 첫째음절인 Va(바)에 강세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끈적끈적한(goop) Vaseline을 살이 베인곳이나, 화상, 심하게 부딪쳐 멍이든 부위에

만 사용한것이 아니라 여러곳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구에 자국이 생긴곳, 나무바닥 닦고 광내기, 가죽 제품, 녹스는것 방지, 고양이의 cat hairball 되뱉는것 방지등 여러용도에 사용되었습니다.

Goop는 너저분하고(sloppy) 끈적끈적한(sticky) 반액체(semifluid)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Sloppy 를 사용한 예는, sloppy work (엉성하게 일한), sloppy handwriting (빼빼빼돌 지저분한 글씨), The batter was a little sloppy so I added some more flour. (밀가루 반죽이 좀 질어서 밀가루를 조금 더 넣었어요). Sloppy Joe 햄버거는 ground beef가, 다른 햄버거 고기처럼 잘 붙어있는것이 아니라 느슨한(loose) 상태로 되어 있어 잘 흘러내립니다. 고기는 양파(onion), 토마토 sauce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1930년대 Iowa의 Sioux City(쑤 씨티)에서 팔던, 뭉쳐지지 않고 흘러내리는 고기반죽으로 Hamburger속을 만든 요리사의 이름이 Joe였다고 합니다. Vaseline발명자인 Chesebrough는 건강을 위해 Vaseline을 매일 한숟가락씩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96세까지 살았던 그는 아침마다 거르지않고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Vaseline은 petroleum jelly (petrolatum)의 상표명(brand)으로 지금은 Unilever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Vaseline과 같은 성분의 다른회사제품은 genetic term인 Petroleum Jelly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Vaseline을 기본성분으로 여러가지 의약품과 연고를 제조하였습니다. 겨울에 손가락 갈라진데 또는 코피가 날때 Vaseline은 보습제 역할을 하기때문에 치료에 자주사용됩니다. 고양이를 보면, 틸

틈히 혀로 털을 핏으며 grooming을 합니다. 이때 혀에 털이 묻어 뱃속으로 들어가 소화가 되지않아, 어느정도 차면 고양이의 내장을 통과하지 못해 뱉어냅니다. 이것이 cat hairball입니다. 예방법으론 정기적으로 사람이 털을 grooming해주거나, Vaseline을 발톱(paw)이나 코에 바르면, 고양이가 혀로 털을 핏을때, Vaseline도 같이 핏어져 미끄럽게되어 구토하지않고 배설물로 나오게 됩니다. 빗질이나 손질, 몸단장 하는것을 grooming이라고 합니다. Dog grooming, Horse grooming도 있겠고, 사람한테 적용하면, "In general, women spend much longer on personal grooming than men."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몸치장하는데 시간을 더 보냅니다.) Vaseline에 비해 다른 연고들은 몇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을 ingredient라고 합니다. 주로 한 음식에 사용된 여러 다른 음식성분을 말합니다. 즐겨찾는 만두의 겉봉지에 써있는 ingredients를 보면 pork, starch, green onion, tofu등이 적혀있습니다. Trust is a vital ingredient in a successful marriage. (상호믿음은 원만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결정적 요소입니다.)



안티푸라민(Antiphilamine)은 연고형태를 지속하기위해 소량의 Vaseline이 들어있습니다. 안티푸라민은 염증(inflammation)을 줄인다는 의미로 영어의 Anti-와 염증을 뜻하는 inflammatory를 우리말로 발음하기 좋게 안티푸라민, 영문으로는 Antiphilamine으로 이름지었습니다. 즉 소염제 (消炎劑: Anti-inflammatory)란 뜻입니다. 소염제의 한자어인 소(消)는 소방서(消防署)에서 보듯 꺼질 소(消)입니다. 그리고 Vaseline 처럼 "ine"를 접미사로 사용하였습니다. 필자가 어렸을때 사용했던 멘솔담은 Mentholatum으로 약국에서 판매합니다. Menthol, Camphor, Petrolatum이 주성분이며, 통증, 가려움완화, 화상, 상처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Vaseline은 피부건조, 상처, 불에 데인데(화상: 火傷) 주로 사용되고, 보습작용이 있어 화장품 또는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유용한 연고(ointment)입니다. 안티푸라민은 간호언니가 뚜껑에 새겨져있는데 반해, 예전에 나온 멘솔담의 뚜껑은 간호모자를 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필

“신앙의 편대비행, 그 하늘을 함께 날아가는 은혜”

박선희
집사



얼마 전 X 장로님과 나는 짧은 문자 대화 속에서 내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쾌함과 함께, 신앙 공동체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을 찾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저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X장로님과 Y 권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삶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이었습니다. 두 분의 교회 생활은 언제나 단정하고 진실했습니다.
크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느껴지는 깊은 신앙의 뿌리는 우리 부부에게 조용한 도전이자 따뜻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를 지키시며, 말없이 본이 되어 주시는 그 모습은 예배당 안팎에서 언제나 신뢰와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보여주시는 두 분의 관계 역시 큰 감동이었습니다.
부부로서의 따뜻한 배려, 자녀들을 향한 지혜로운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걸치레 없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드러났기에 우리 부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저런 가정이 되어야지.”
특히 자녀분들을 보며 그 마음은 더

욱 깊어 졌습니다.
바르게 자라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인격과 신앙을 갖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은 부모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열매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 말씀 위에 선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도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작은 걸음이지만,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도 그 방향을 따라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분이 본이 되어 주신 삶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찬에 어지럽습니다.(비행기를 태워 주시니...) 고도를 조금 낮춰 주시길요.
이왕 비행기에 탔으니 함께 편대비행이나 하시죠!” 하며 4가지의 편대비행 종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편대비행은 무엇인지 택해 보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으며 웃음이 났지만, 그 안에서 깊은 교훈도 느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높이 난다고 해서 멋진 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대의 비행기가 각자의 위치에서 균형과 질서를 지키며 하늘을 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감동을 주는 ‘편대비

행’이 아닐까요?

저는 장로님이 주신 숙제를 남편과 함께 생각하며 여러 편대비행의 형태를 찾아보다가
“다이아몬드 포메이션(Diamond Formation)”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은 중심이 분명하고, 각 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정확한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 혼자만 앞서거나 뒤처지면 모양이 무너지고, 오직 서로를 신뢰하고 호흡을 맞출 때에만 그 아름다운 형상이 유지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쇼에서 보는 다이아몬드 편대비행
The Red Arrows in their diamond nine formation at the Eastbourne Airshow 2014
WikiMediaCommon/Author Flyer500

한 사람이 돋보이거나 주도하는 것보다, 모두가 서로 협력하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사랑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24 페이지로 계속>

매혹적인 경치 좋은 순환 도로 엔첸티드 서클 시닉 바이웨이 (Enchanted Circle Scenic Byway)

엔첸티드 서클 시닉 바이웨이는 뉴멕시코 북부에 위치한 84마일(약 136km) 순환 코스로, 타오스(Taos) 마을에서 시작하여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높은 산, 휠러 피크 산을 중심으로 두고 한바퀴를 돌아 타오스로 돌아오는 길이다. 카슨 국유림을 통과하는 이 코스는 메사와 개울이 흐르는 계곡과 산을 지나 고원지대의 초원을 지나며, 타오스 푸에블로, 유서 깊은 광산 마을 레드 리버(Red River), 그리고 이글 네스트 호수(Eagle Nest Lake)를 비롯한

주요 명소를 통과한다. 정차 하지 않고 완주하는 데는 약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이 소요되며, 아름다운 경치와 야외 활동으로 인기가 높은 코스다.

엔첸티드 서클 시닉 바이웨이를 시계 방향으로 갈 경우 들러 갈 수 있는 주요명소를 차례대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1)타오스 푸에블로

천년 넘게 살아온 타오스 인디언의 마을이다.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북쪽으로 2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다. 2층에서 5층에 이르는 어도비(Adobe) 건축



타오스 푸에블로의 어도비 주택

물이 특징이다. 전화: (575) 758-1028
주소: 120 Veterans Highway Taos, New Mexico 87571, 입장료: \$25
웹사이트 : www.taospueblo.com

(2) D.H. 로렌스 랜치(D.H.Law-

<신앙의 편대비행 23 페이지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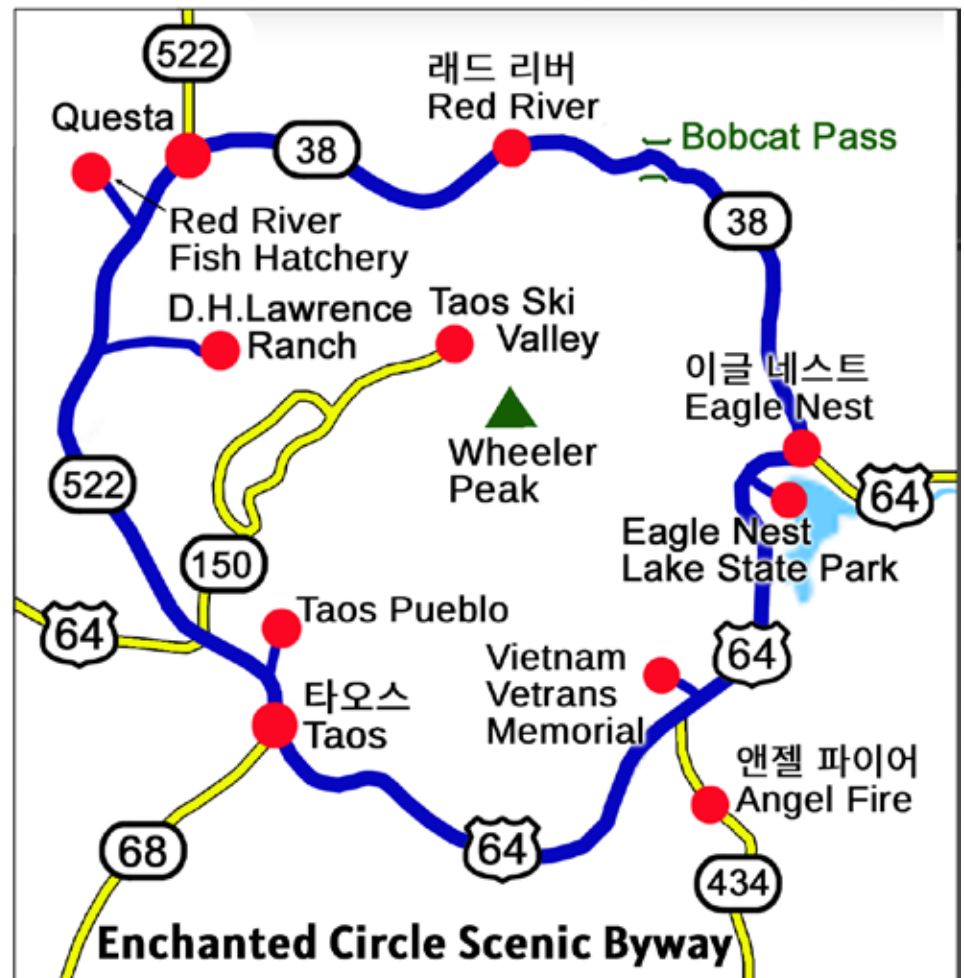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건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저희 편대의 든든한 리더기입니다.

언제나 정확한 고도와 방향을 보여주시고, 무리하게 앞서지 않으시며, 뒤쳐진 이들을 기다려 주시는 그 따뜻한 비행은 저희에게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는 하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며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의 한 대로서 함께 날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그 모양을 끝까지 지켜가고 싶습니다.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 따뜻한 비행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rence Ranch)

영국 작가인 D.H. 로렌스가 이곳 목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로렌스의 유해가 안치된 차풀이 있다. 화,수,목요일에 방문할 수 있다. 타오스 다운타운에서 14.1마일 되는 지점에 사인판이 있다. 4.8마일 비포장 도로로 간다. UNM에서 관리하고 있다. 웹사이트: fm.unm.edu/quick-links/dh-lawrence-ranch.html 전화(575) 776-2245

(3) 레드 리버 양어장(Red River Fish Hatchery)

타오스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515번 도로로 들어간다. 연간 약 170만 마리의 무지개 송어(Rainbow Trout)를 양식하는 뉴멕시코



코주 최대 규모의 부화장이다. 무지개 송어가 있는 쇼 연못과 여러 송어 경주로를 무료로 둘러보는 셀프 가이드 투어를 즐길 수 있다. (575)586-0222 www.wildlife.state.nm.us/fishing/fish-hatcheries/

(4) 퀘스타(Questa)

퀘스타에서 38번 도로를 만나 이 길로 들어 가면 칼손 국유림의 계곡으로 들어간다. 스키로 이름난 레드리버(Red River)까지 약 12마일의 경치 좋은 산길에는 컬럼바인 캠프장, 엘레펀트록



계곡을 따라 레드리버로 가는 38번 도로 주변

캠프장등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럿이 있어서 레드리버 개울가에서 피크닉이나 캠핑하기에 좋은 곳이다.

(5) 레드 리버(Red River)



레드리버 마을의 주변 경치

광산촌이었던 레드 리버는 스위스 알프스 어느 마을에 온 인상을 준다. 건축물은 옛날 서부시대를 연상케 하는 목조 건물이 주를 이루는 것이 또한 이채롭다.

이 곳에서는 겨울철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스키장 리프트는 여름에도 운행된다.

(6) 이글 네스트 호수(Eagle Nest Lake)



봄캐트패스 고개를 넘으면 초원지대가 나온다



이글 네스트 호수

레드리버를 지나서 봄캐트패스(Bobcat Pass) 고개를 넘어서 이글 네스트까지 오는 10여마일의 길은 넓은 초원지대를 달려서 이글 네스트 호수앞에 이르게 된다. 이 호수는 해발 8,200 피트(2,500 m) 고원지대에 있는 인공호수로 낚시, 보트를 즐길 수 있는 주립공원이다.

(7)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Vietnam Veterans Memorial)

빅터 웨스트폴 박사와 그의 가족이 베트남에서 전사한 아들과 참전용사를



기념관 입구에 있는 조각물

기리기 위해 세운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이다. 기념관에는 야외극장, 추모 산책로, 추모 정원, 휴이 헬리콥터 전시가 있다. 또한, 기념관에서는 앤젤 파이어 주립 참전용사 묘지가 내려다 보인다. 2017년에 재향군인 서비스부가 기념관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8) 앤젤 파이어(Angel Fire)

스키, 골프, 쇼핑, 레스토랑을 갖춘 사계절 리조트이다. 여행중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좋은 선택이 되는 곳이다. 높이가 12,167피트(4013m)의 휠러 피크 산 봉우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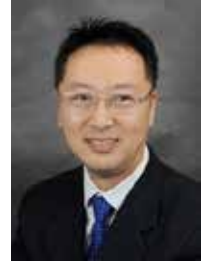


앤젤파이어에서 보는 휠러 피크 산 봉우리

샘물처럼 평생을 보장하는 어뉴이티

이 한주

Financial
Professional



나의 자산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게되고,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현금 자산들은 안전하다는 은행에 CD 로 자산 증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뭐든지 집토끼, 산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없다는 모두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 잡으려고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고수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에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많은 곳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금리도 일부 내리기는 하였지만,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5%의 은행 CD 이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최근 한 은행의 광고에 8개월 짜리 CD 가 4.35% , 12 개월 CD 가 4.25%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점이 있지 않나요?

장기 보다는 단기가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미국 금리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고 금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으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보험회사

경우는 은행 CD 처럼 Annuity 라는 연금 상품이 있는데, 대부분 목돈을 넣고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개념입니다.

3 년과 5 년의 MYGA 라는 것이 있고, 7 년, 10 년 이상의 Annuity 상품도 있습니다. 먼저 MYGA 라는 것은 은행 상품 보다 조금 오래 보관해야 하지만, 은행 CD 보다는 0.5% 더 많이 받게 되는 고정이자면서 복리이자를 받게 되므로, 3 년 또는 5 년 경우에는 원금에 받은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고정으로 보장이 되고,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예상치 못한 숫자의 금액이 붙어있을 것 입니다.

또 한가지는 매년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는 CD 와는 달리 Annuity 는 매년 연기가 되므로 당해에 인컴택스와 함께 내야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 CD 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매우 좋은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은행 CD 와 MYGA 로 받는 이자는 결국에 물가상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 증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Annuity 중에 7 년 또는 10 년 이상 예치하는 상품이 있는데, 고정 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S&P 500 이나 다른 투자기관을 선택하여 자산을 올바르게 증식 시킬 수 있습니다.

Indexed 이자를 받게 되는데,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이자를 받고 주식

이 하락할 시에는 나의 원금과 그 동안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이 원금 보장을 해 주는 이자방식입니다.

단점으로는 내가 받는 이자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서 어느 한계선 까지만 지급을 받게 되고 주식시장이 그 한계선 이상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투자 기관에 대한 옵션이 있어서,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hare, Black stone,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가 대표적으로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여 회사 실적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으시면, 지금 같은 상황에도 손실을 줄이고 자산 증식은 배가 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줌이나 대면 세미나가 있으니 연락 주시고 나의 상황에 맞는 분산 투자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AZ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Hye Young Yoon

Fluent in Korean & English
Licensed Realtor

윤혜영
부동산 중개인



☎ Hye1231@gmail.com

☎ 917-862-1782

☎ Hye1231@gmail.com

Korean Churches in N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 오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알버커키 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a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추석근 목사 (714) 213-9627

주일예배 1부 시간 :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 김지수 전례부장: 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 (화, 오전), 성령기도회 (수, 저녁)

기도회: (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아침기도회: 7:00am (월, 화, 목, 금)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ar
1649 Bridge Blvd. SW
Albuquerque, NM87105
(505) 247-2525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RIMOMN PC
500 Marquette Avenue
NW, Suite 1200
Albuquerque NM 87102
(505)437-2220
youngjun.roh@rimonlaw.
com

부동산 Realtors

윤혜영 Hye Young Yoon
My-A Realty
(917-862-1782)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전용매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식당 Restarant

꼬끼오 코리언 치킨
Kokio Korean Fried
Chicken
8019 Menaul Blvd Suite A
ABQ(505-308-3179)
Website:kokioabqnm.com

김스마켓
Kim's Oriental Market
(마켓 부속 식당 한식,중식)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아리랑 식당
Arirang Market
(마켓 부속 식당)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 (일식,한식,스시)
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UNM 앞)
ABQ (505)243-8089

아시안페어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Website:
asianpearabq.com

이찌반 식당
Ichiban Japanese
Restaurant (한식, 일식)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Website:ichibanabq.com

사쿠라 스시 앤드 그릴
Sakura Sushi and Grill
일식 한식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케이 스타일 키친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사무라이 그릴 앤드 스시바
Samurai Grill & Sushi
Bar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Website:
www.abqsamurai.com

쇼군
Shogun (일식 스시)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Website:
www.shogunabq.com

한미 (한식 중식)
Hanmi Korean Chinese
Fusion
2120 Juan Yabo Blvd. NE
ABQ NM 87112
(505-717-1287)

식품점 Korean Grocery

에이원 한국 식품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아리랑 오리엔탈 마켓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스 오리엔탈 마켓
Kim's Oriental Market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웹사이트:thegaragenm.
com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23-7700)

Dr. 제임스 구
James Ku Albuquerque
General Dentistry
9316 Montgomery Blvd.NE
Albuquerque, NM 87111
(505-800-5050)
웹사이트: jameskudds.
com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 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제임스 박)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업데이트 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화원/원예 Nursery

오수나 너서리 (묘목, 화초)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r-
querque NM 87113
(505-345-6644)
웹사이트:
www.osunanursery.com

회계사 ACC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al Clinic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 & 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로스루나스 Los Lunas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 윤자정
219 Courthouse Rd. SE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웹사이트:
dentistloslunas.com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손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식당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NM
(505-820-2126)
박성희/신숙희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Lotus Dumpling House
1807 2nd St. #35
Santa Fe
(505-303-3740)
최리엔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쇼건 스테이크 하우스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 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5년 9/10월호 발행일 : 2025.9.5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사회/문화부장 : 김경란(Chloe Kim)

발행처: 알버커키감리교회 사회 문화부

Korean-American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TD7VII INC 현장 통역이 가능한 코디네이터를 모집합니다. 경력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WE ARE HIRING
 : Operations Coordinator / Translator

채용공고

- ✓ 모집 부문: 엔지니어링 부서
- ✓ 모집 대상: 오퍼레이션 코디네이터 / 통역
- ✓ 근무지: Rio Rancho
- ✓ 고용 형태: 정규직
- ✓ 모집 인원: 0명
- ✓ 접수 기간: 적격자 채용 시 마감

지원자격

- ✓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 ✓ 프로젝트 관리 경험자 우대
- ✓ 컴퓨터 활용 능력 필수
- ✓ MS Excel 및 Word 숙련자
- ✓ 현장 경험자 우대

지원 방법
 지원 또는 문의는 hr@td7inc.com로 부탁드립니다.

아리랑 마켓+식당
A-Ri-Rang Oriental Market and Restaurant



Mon - Sat 10:00 am - 6:00 pm
Sunday Closed
(505) 255 - 9634
 1826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2

KIM'S 한국식품/식당
ORIENTAL MARKET
FOOD, GIFTS & MORE

Mon-Sat 10:00 am - 7:00 pm
 Sun 11:00 am - 5:00 pm
(505) 296 - 8568
 2306 Morris St. NE, Albuquerque, NM 87112

HANMI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저축성 생명(암)보험 - 롱텀케어 기능**
***세금절세 - IRA, Roth IRA & 401(K) Rollover**
***100세까지 Guarantee되는 Annuity 연금**
***학자금 플랜 *줌 무료 재정교육**

모든 상품은 복리이자로 원금 보장

이한주(Han Ju Lee) Tel (213)321-8787
 CA Lic.#OK41143 / NM Lic.#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ESSAY

Rural Healthcare in New Mexico (뉴멕시코의 농촌 의료)

Hyemin Choi

UNM
Biochemistry

Hello,
My name is Hyemin Choi. Of the college applications I submitte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enrolled i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Combined BA/MD Program. I was accepted and am three years in to pursuing a biochemistry degree. The BA/MD Program was created to encourage more doctors to practice in New Mexico, particularly rural cities in this state. Due to a severe lack of medical professionals in the state, the program accepts New Mexico high school students, to which they complete four years of undergraduate study at UNM and then matriculate into the UNM School of Medicine. After completing their second year of college, there's a summer practicum in which students live in a small New Mexico town for a month- shadowing and volunteering. Last summer, I lived in Roswell for a month with two classmates. We volunteered at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 STEAM, Joy Senior Center, and Harvest Ministries, and shadowed at Roswell Surgical Center, Arnett Medical, and Transaero Medevac. I'd like to share what I've learned. Roswell houses a total of 40,000 to 50,000 residents, but only opens doors to two hospitals.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approving of Trump's "Big Beautiful Bill", those two hospitals are now also at the risk of closing, although there is still hope. One of the biggest issues that present a threat to the healthcare of all New Mexicans is

the current policy that allows the maximum amount that a physician can be sued to be raised to the millions when previously it was capped at \$250,000. While speaking with the health council and physicians in Roswell, they provided us with some insight to the harm that it holds: one third of medical doctors have left New Mexico due to malpractice insurance becoming unbearably expensive. With an already diminishing popula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the added burden of expensive malpractice insurance causing doctors to leave the state is reducing the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that New Mexicans already struggle to have. The commissioners of Roswell also had informed us that a majority of New Mexico legislation is composed of lawyers and therefore changing the policy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as this policy helps lawyers that obtain more business through malpractice lawsuits and win greater cases. Unfortunately, this means that New Mexico residents will continue to face lack of accessibility to treatments, appointments, and quality care, and that may not only continue but worsen.

At this point, we were feeling pretty devastated. We saw places like Joy Senior Center get program funding cuts and the same hospitals that we were shadowing and volunteering for losing their doctors. I felt disappointed and frustrated that I couldn't do anything for them at the moment. However, there are always ways

that we can provide support. Upon further discussion with the council and physicians, I learned policy is a factor that tremendously influences the future of healthcare. It's not just a matter of going through medical school, learning didactics, completing clinicals, and getting a license but also understanding patient advocacy and actually practicing it. It's not enough to just see a patient and treat their symptoms or run tests and do a surgery. Understanding social, environmental, mental, and socioeconomic factors of each patient is crucial to actually taking care of a person as a whole. That's been the common theme of summer practicum and the BA/MD Program itself: learning to treat the person not the disease. While I am still on the journey to become a medical doctor, I carry these experiences and pieces of knowledge in hopes that I can not only do what I can now as a student but utilize the position I would hope to have in the future for my patients. And as I write this, I'm hoping that it will reach the people living in the rural cities, in the areas depleted of medical help, and the individuals who feel deep mistrust in the healthcare system to give some perspective and maybe some hope that there are many students like me that are pursuing this career to help the people who have had the least support and advocacy in medicine- to help the people of New Mexico.